



禪





차물 끓이기와 차 마시는 온도

지산 김동수(예원당 대표)



여러 가지 차가 많지만 그 중 보이차는 잎 자체도 크고 채엽(차잎을 따는 일)도 크게 한다. 이에 비해 녹차는 잎이 작고 채엽을 작게 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바로 차잎이 작고 연할수록 차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로 우려면 차의 신선한 맛이 사라지고 물에 잘 녹는 폴리페놀과 카페인 등의 화학성분이 대량으로 녹아나와 맛이 쓰고 떨어지니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보이차는 반드시 펄펄 끓는 물로 우려야 한다. 그런데 보이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녹차 우려는 식으로 한 김 식힌 물로 보이차를 우려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 보이

차의 맛을 내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제대로 우려나지 않아 그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물은 몇 분 정도 끓여야 할까?

어떤 차를 막론하고 이상적인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끓인 물로 차를 우려면 차의 당색과 맛과 향이 가장 잘 표현되고 차잎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도 잘 녹아난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끓이면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모두 휘발되어 활기가 사라지고 우려낸 차탕도 신선한 맛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물로 우려낸 차를 따르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뜨거운 차탕은 식도에 무리를 주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미각이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아 정상적으로 맛을 평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70도 정도로 차잔의 차가 한 김 식은 후에 마시는 것이 식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제대로 차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물론 너무 식은 차 역시 좋지 않다. 차탕이 적당히 뜨거울 때는 맛을 내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들이 조화롭게 녹아있지만 차탕 온도가 떨어지면서 화학성분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희석되어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이차의 매혹> 참조

禪

불기 2560년
통권 12호

2	조주의 차 한잔 차물 끓이기와 차 마시는 온도 / 지산 김동수
4	지혜의 공간⑥ 대혜보각 선사 『중문무고』 (30화~32화) / 연관 스님
8	역사 속 재가수행자② 혼탁한 세계에서 청빈한 삶을 살다간 '야율초재' / 정운 스님
10	제2회 간화선대법회 현장 중계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 정리-사무국
16	일상 속 수행 집 / 법념 스님
18	쉬고 또 쉬고 바람이 분다 / 희상 스님
19	수행자의 서가 마음을 뚫어라, 「관심론」 / 여현 스님
21	특별 보고1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경과 보고 / 중효 박희승
24	봉암사 후원 신청서
25	특별보고2 국제 선건축 세미나를 마치고 / 홍광표
30	대중알림판 공지사항
32	후원 현황 2016년 8~10월 후원 현황
35	정기후원신청서



표지화 - 희상 스님

대혜보각 선사 『종문무고』 (30화~32화)

참학 비구 도겸 엮음
연관 스님 번역

이 책은 대혜스님의 제자인 도겸스님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대혜스님이 좌선하는 여가에 틈틈이 대중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모은 것이다. 흔히 “임제종 종풍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할 정도로 118여 이야기 가운데 임제종 종장의 접물이생 인연과, 오도의 정수와, 종횡무진한 기변을 보였다. 『종문무고』는 ‘종문의 무기 창고’쯤 되는 말인가? 혹은 ‘무고’는 박학다식하며 다재다능한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기도 하다. ‘종문의 무기고’를 열어보기로 한다.

【제30화】 법운 고(法雲 杲 : 東京 法雲寺 佛照 杲 선사) 화상이 제방의 여러 선지식 회상을 두루 거쳐 원통 기(圓通 璣 : 圓通圓璣) 도자의 회상에 이르렀을 때 일이다. 방장에 들어가니 기(璣)가, 조주가 투자(投子 : 投子大同)에게 ‘크게 죽은 사람이 도리어 살아날 때는 어떠한가?’하고 물으니, 투자가 ‘밤에 다니는 것은 허락하

지 않습니다. 동이 터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 것을 들어, “이 뜻이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고(杲)가 “은혜가 커서 갇을 길이 없습니다.”하니, 원통이 매우 칭찬하였다.

며칠 후 입승병불(立繩乘拂)에 천거되었으나 기변(機辯)이 더디고 둔하여 온 대중이 크게 비웃으니, 고(杲)가 부끄러워하였다. 다음 날 특별히 대중을 위해 다회(茶會)를 열었는데, 다구를 다탁 위에 놓다 당황하여 다구를 뒤집어엎고 표주박이 땅에 떨어져 때구루루 굴러가는 바람에 크게 깨닫고는 답화(答話)와 기봉(機鋒)이 날카로워 감당할 자가 없었다.

다시 진정(眞淨)의 처소로 돌아와 조사의 계(계7조 파수밀 존자 전법계)인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니
허공을 증득할 때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네.

心同虛空界
示等虛空法
證得虛空時
無是無非法

한 것을 보고 활연히 대오하였다.

나중에 세상에 나와 법을 펼 적에, 법상에 올라 늘 대중에게 “나는 소성(紹聖) 3년 11월 21일에 조그만 선을 깨달았다.”하고, 또한 “나는 희령(熙寧) 3년에 문장(文帳 : 부역을 면제해 주고 승려가 될 것을 허락하는 증서, 3년에 1회씩 발부함)을 발부받고 봉상부(鳳翔府)에서 공신(供奉 : 僧尼가 본인이 소속한 州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해도 좋다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해에 화산(華山)의 18주(州)를 함락시켰으니, 너희들 같이 멍청한 녀석들이야 어떻게 알겠느냐!”하였다.

조칙으로 법운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개당하는 날 궁중에서 보낸 사신이 어향(御香)을 받들고 와서 어록을 받칠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홍각범(洪覺範)이 회하에 있었는데, 시자더러 그에게 어록을 엮게 하니, “우선 노화상의 얼굴을 보라.”하였다. 각범이 이를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정리하여 그에게 바치니, 다 읽어 보고는 “만일 생사를 해결하는 선(禪)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나에게 돌리시오. 또한 비단에 꽃무늬를 수놓듯이 아름다운 사륙문장(四六文章)이나 장황한 말이라면 우리 홍형(洪兄)이어야만 되겠소.”하였다. 법운은 평소 기백이 제방을 삼킬 듯하고 당시 사람들을 어린애 다루듯이 하였으니, 깨달음이

남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제31화】 담당(湛堂) 화상이 돌아가시자, 스님 [대혜]께서 각범에게 그의 행장을 적게 하고, 또 용안 조(龍眼照 : 龍眼慧照 선사, 兜率 悅의 제자) 선사에게 소개 편지를 받아 특별히 형남(荊南)으로 가서 장무진 거사를 뵈고 탐명(塔銘)을 부탁하였다.

처음에 무진을 뵈니 무진이 뻗뻗이 서서 물었다.

“스님이 이렇게 쉼신을 신고 멀리서 오셨군요.”
“제가 수천 리를 걸식하면서 와서 상공을 뵈옵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스물 셋입니다.”
“수고우(水牯牛 : 깨달은 헛수) 나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 살입니다.”
“어디서 이따위 허풍을 배웠습니까?”
“오늘 상공을 친견합니다.”

그러자 무진이 웃으며 “우선 앉아서 차나 드십시오.” 하고는, 자리에 앉자, 또 “무슨 일로 멀리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제야 일어나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늑담(渤潭) 화상께서 돌아가시어 다비에 붙이니 눈동자와 치아와 염주는 타지 않았고, 무수한 사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중의 장로들이 모두 상공의 대수필(大手筆)로 탐명을 지어 후학을 격려해 주셨으면 하여,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균청(鈞聽)을 모독하나이다.”

“나는 죄를 지어 이곳에 온 후로 여태껏 다른 사람을 위해 문자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스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면 탐명을 지어드리겠지만 대답하지 못하면 노갯돈 5관을 드릴 테니 우물쭈물 하지 말고 도술로 도로 돌아가 선이나 참구하십시오.”

“상공께서 물어주십시오.”

“준(準 : 文準. 湛堂 선사) 노스님은 눈동자가 불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눈동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상공께서는 어떤 눈동자를 물었습니까?”

“금강 눈동자입니다.”

“금강 눈동자라면 상공의 붓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저를 위해 광명을 붙여 하늘과 땅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의자 앞으로 다가왔으면서 “선사(先師)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상공의 탐명에 감사드립니다.”하니, 무진이 “그래요! 그래요!”하며 웃었다.

탐명의 대략은 이러하다.

사리는 공자나 노자의 서적에선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부처님 세존께서 멸도하신 후 제자들이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조주 종심은 만 여 날이나 되는 많은 사리가 나왔고, 근래의 융경 한(隆慶 閑 : 隆慶院 慶閑)이나 백장 숙(百丈 肅 : 百丈山 元肅) 같은 이는 연기가 미치는 곳에는 모두 사리였다고 한다.

대개 출가인은 본래 생사의 큰일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생사가 닦쳤는데도 갈 곳을 모른다

면 이는 서너 집 되는 시골의 일없는 농부가 임종에 자식들에게 일일이 부축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사대색신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가합(假合)한 것이니, 사리가 어찌 체성이 있으랴. 그러나 범행이 청결하고 선업이 견고하여 영명하고 확철하다면 미리 죽을 것을 알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보와 정보 두 가지 과보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아서, 세인의 추탁한 마음은 본분사에서나 일상 가운데서 미세유주를 맡아 관리한 적이 없었으니, 이르고서 큰 아만을 낸다면 이것은 업의 주인인 귀신이 집을 차지하는 격이라, 어떻게 사리가 나오거나 몸뚱이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32화】 복엄 치(福嚴 真 : 眞如慕喆의 제자) 화상은 동천(東川) 사람으로, 처음에 사방을 행각하여 진여(眞如 : 大滙慕喆) 화상을 뵈고 정견(正見)을 발명하였다. 위산(滙山)의 지객료(知客寮) 입승으로 있을 때, 말을 잘못했다(내용은 알 수 없음) 하여 물러나 원두(園頭)가 되어 죄값을 하려 했더니, 진여가 “자네는 박복하니 채소를 가꾸어 대중에게 공양하는 것이 마땅하네.”하였다.

2년을 마친 후 소임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진여를 떠나 진정과 오조를 찾아뵈고 도를 물으려 했더니, 진여가 “제방을 두루 행각하는 것은 옛 성인들의 유범(遺範)이다. 빨리 떠나라.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하였다.

처음에 동산에 나아가 서로 뜻이 계합하니 진정이 대중을 거느리는 입승에 천거하였고, 얼마

후에 또 사조 선(四祖 宣 : 仲宣 선사. 佛印 靑의 제자) 화상 회상에 갔으며, 가끔 오조를 찾아보니 조가 점점해 보고는 과연 남다른 곳이 있다 하였다. 그리하여 오조가 사조에게 “치 수좌는 총림의 달사(達士)네. 어찌하여 저를 수중(首衆)에 천거하지 않는가?”하니, 사조가 그의 부탁과 같이 하였고, 오조도 역시 법당에 올라가 그의 지견과 계략을 칭찬하였다.

이수찬(李修撰)이란 이가 장사(長沙)를 다스렸는데, 사조가 편지로 그를 천거하였다. 얼마 후에 복엄사 주지 자리가 비게 되자 평 보용(平 普

融 : 普融道平 선사. 眞如 喆의 제자)도 다른 사람을 천거하였다. 그러자 태수가 “먼저 사조 스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하며 편지를 찾았으나 아직 보지 못하여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손님과 마주하여 앉아있는데, 쥐 한 마리가 시령을 타고 올라가 편지 한 통을 물고 와 앞에 놓고 사라졌다. 이를 펴보니 사조가 치 수좌를 천거한 편지였다. 태수가 괴이하게 여겨 마침내 치 선사를 간곡히 청하였다.☺

간화선 수행으로 일상의 행복한 삶 이룰 수 있습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수좌 복지기금 후원 문의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02)922-9967
<http://www.seonsujoa.org>
e-mail : seonsujoa@daum.net

지정병원의 확보와 치료, 수좌 복지체계 확립의 지름길

제1호 지정병원 동보한방병원(치질, 치핵 치료 / 053-425-4085)
- 의료 전문의 불자님들의 큰 관심과 재능기부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인 복지사무처로 해주세요. ☎ (02)922-9967



혼탁한 세계에서도 청빈한 삶을 살다간 '야율초재'

정운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이다. 고려도 몽골 침입으로 피해가 매우 심했다.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고, 이후 팔만대장경이 완성되기도 하였다[현재 해인사에 모셔져 있음]. 이 몽골족이 지나간 자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을 만큼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나마 몽골인들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잠재운 사람이 있다. 바로 요나라 사람인 거란족 야율초재(1190~1244)이다. 역사적으로 야율초재는 징기스칸의 책사요, 불교적으로는 조동종 만송 행수(萬松行秀, 1166~1246)의 제자이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율초재가 살았을 당시 국제정세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야율초재는 요나라 사람이다. 여진족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킨 후 요나라는 금나라에 부속되었다. 이후 금나라는 점차 세력을 키워 송나라와 끊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때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이 부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향해 야금야금 침략하는 중이었다. 송나라가 금과의 전쟁에

서 패배하면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송'이라고 칭했다. 결국 훗날 금나라와 남송, 모두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몽골은 '원나라'라고 칭하였다. 이후 원나라는 96년간 중국 땅을 지배하였다.

야율초재는 황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천문 · 지리 · 수학 · 불교 · 도교 · 유학 등 여러 학문에 능통했다. 중국 상하이대학 역사학자 위치우이[余秋雨, 1946~]는 야율초재에 대해 '이민족 사람으로서 한족 학자보다 더 뛰어난 문장가요, 학문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야율초재는 송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해 선비의 길을 걸었으나 부친이 금나라 관리였기 때문에 전란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앞에서 거론한 대로 야율초재가 젊었던 시절은 금나라, 남송, 몽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 야율초재는 성안사(聖安寺) 징공(澄公) 선사에게 사사했다. 징공의 추천으로 27세 무렵, 조동종을 중흥시킨 만송 행수(1166~1246)의 제자로 입문해 참선을 시작했다. 만송 행수는 야율초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 서문에 이렇게 서술하였다.

“담연 거사는 27세 때부터 나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잊었으며, 세간의 명리에 착하지 않았다. 담연은 마음의 도리를 크게 구하여 신묘한 경지를 정밀하게 추구하였다. 추위와 더위,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참구하기를 3년 만에 도를 얻었다. 이에 나 만송은 그에게 계송을 내리고, 담연(湛然)이라는 법호를 주었다.”

한편 야율초재는 만송 행수의 <종용록> 서문

에서 자신의 선 수행 과정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종용록은 현재 조동종의 수행지침서로써 중요한 자료]. 선종 법맥도에 만송 행수의 법맥으로 야율초재가 기재되어 있다. 선종사에서는 야율초재를 '담연거사'라고 한다. 이런 야율초재가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았을까?

몽골의 징기스칸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징기스칸은 정신적 지주가 될 인물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요나라의 야율초재가 적격인물이었다. 결국 징기스칸은 당시 금나라 지배를 받고 있던 요나라의 야율초재를 책사로 모셨다.

야율초재는 '우주만유 도리를 탐구하고, 성품을 닦는 일에는 불교의 가르침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세간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는 공자의 가르침이 마땅하다. 나라 일을 하는 데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나(我)를 버리는 일에는 불교의 진여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징기스칸의 책사 임무를 시작하였다.

즉 그는 유교로서 나라에 봉사하고, 불교로서 마음을 다스린다[以儒治國 以佛治心]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징기스칸은 주위 신하들에게 야율초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 야율초재를 내 곁에 두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것이다.”

야율초재는 징기스칸을 늘 곁에서 보필했고, 징기스칸 또한 야율초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야율초재는 도교의 도사를 초빙해 징기스칸의 마음공부를 도왔고, 살생의 부도덕성과 생명의 존중성을 일깨워 주었다. 칸이 죽기 한 달 전, 군신들

에게 '정복을 해도 사람을 살상하지 말고, 노략질하지 말라'는 포고를 내리기도 했으며, '야율초재는 하늘이 우리 가문에 준 인물이니 그의 뜻에 따라 국정을 행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야율초재는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2대 오고타이 시대까지 책사를 지냈다. 그런데 2대 오고타이 왕이 일찍 죽자, 왕비가 섭정을 시작했다. 야율초재는 섭정인과 왕비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아 정치적으로 숙적 관계였다. 결국 그는 정치적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55세에 화병으로 죽었다. 야율초재가 죽자, 정적들은 그의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그의 재산은 거문고와 악기 10여 개, 그림 몇 점과 수천 권의 책뿐이었다.

야율초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첫째, 야율초재는 불교신자로서 참선을 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종교관이 있었기에 몽골인들에게 생명 살상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하였고, 생명 중시를 일깨워주었다.

둘째, 몽골이 중국 전토를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법률이나 국가 운영 방식, 관리 제도 등 국가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가 제안한 법률이 원나라가 존립할 때까지 실시되었다고 한다.

셋째, 동서양을 떠나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명리를 이용한 과욕으로 추락하는 인물이 많다. 야율초재도 정치인이었지만, 그는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을 남겼다는 점이다. 후세에 영원한 귀감이라고 본다.☺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제2회 간화선대법회

정리 사무국

제2회 간화선대법회가 지난 10월 21일, 1만8천여 대중 동참을 이끌어내며 원만회향되었습니다. 2013년 4월, “간화선의 올바른 뿌리를 찾아서”란 주제로 마련했던 1회 간화선대법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법회는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는 주제로 7분의 대선사들이 매일 법석에 올라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대불전에서 2016년 10월 15일(토)~21일(금)까지 7일간 연이어진 그 큰 가르침의 중요 귀절귀절들을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입재일 : 10월 15일(토, 음9.15)

법 사 : 진제 법원 종정 예하



“법의 깃발을 세우고 향상의 종지를 세움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함이요. 가시덤불을 뚫어 지나가고, 부처님

과 조사의 엄함을 풀어 열면 은밀한 땅을 얻으니 모든 하늘 천신이 꽃을 올리려 해도 길이 없고 외도들이 가만히 엿보려 해도 문이 없는지라. 어떤 이가 이렇게 옴이고?”

종정 예하의 법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예하께서는 또 “부처님의 견성법은 각자가 화두참구하여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됨이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지를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시며 이

간절한 화두참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고 당부하셨다.

이어 스님은 “여러 차례 해외 순방을 하면서 간화선 참선법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특히 지식층들이 참선 명상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며 “수좌 스님들이 선방에서 착실히 공부하여 세세생생 한국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예하께서는 법문 말미에 “일등 지혜의 눈을 갖추고 한편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다음과 같은 실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세상을 밝게 하자. 옛 선사들이 자신의 수행보다 대중을 지도함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런 연유다. 이런 이가 있으면 산승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겠다.”시며 ‘인성교육 5계’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2. 부모와 조상님께 효도합시다.

3. 친구와 이웃을 사귀어 신의를 바탕으로 합시다.
4. 맑은 바 일에 성심과 정성을 다 합시다.
5. 못 생명을 사랑합시다.

맑고 푸른 하늘이 빛나던 입재일에는 동화사 대불전은 물론 통일대불 앞 광장까지 무려 1,500여명 이상의 대중들이 운집했다. 7분 선사의 모습을 담은 대형 현수막들이 대불전 안팎을 장엄한 가운데 청아한 목탁 소리가 제2회 간화선대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승가와 재가, 일체의 대중들은 정좌를 하고 일심으로 법문을 청하고, 온 마음으로 법문을 배웠다.

둘째날 : 10월 16일(일, 음9.16)

법 사 : 금곡 무여 대선사



가을비가 제법 세차게 내린 둘째 날은 경북 봉화 축서사 문수선원 선원장이신 금곡 무여 대선사께서 법석에 오르셨다. 굶은 날씨 탓에 동참 대중이

적을 것이란 우려가 무색하도록 동화사 대불전은 입추의 여지없이 대중들이 자리하고 앉았다. 뿐만 아니라 거세지는 빗줄기와 세차게 부는 차가운 바람으로 어수선한 대불전 밖 풍경과는 달리 차분한 어조로 설하시는 무여 스님의 법문과 이어진 즉문 즉설에 온 대중이 하나가 되어 경청을 하였다.

“화두는 존재의 실상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법문 중의 법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나 뿐인 목숨까지 걸고, 일생을 다 바쳐 화두를 참구한 것은 우주

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래를 만든다 했습니다. 화두 참구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 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화두 참구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온전히 믿고, 간절하게 참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의정이 일으켜지고 마침내는 깨달음의,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 그대로, 공부와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화두선의 핵심은 생활선이 되는 것입니다. 좌선을 위주로 정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정한 화두의 힘은 동중(動中)공부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화두선은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기막힌 수행법이니 무릇 대중들은 화두 참구로써 멋진 인생,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즉문 : 초기불교 명상과 간화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즉설 : 초기불교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명상입니다. 누구나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란 말씀입니다. 이 초기명상이 꾸준히 발전해 드러난 것이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진보된 시대에 걸맞는 수행법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명상으로 기초 단계를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염불이나 주력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단계는 하되 좀 집중이 된다, 일념이 된다, 아주 맑고 집중되는 상태를 맛보기 시작했다 여겨지거든 간화선으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초기명상으로는 간화선처럼 힘차게 발심하고, 간절하게 참구해서 들어가기 대체로 어렵다는 것이 선사들의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세째날 : 10월 17일(월, 음9.17)

법 사 : 금아 해국 대선사



가을비가 기운을 푹 떨어뜨렸다. 하지만 법당을 가득 메우고, 대불전을 에둘러 설치되어 있는 난간까지 사람들이 촘촘

히 어깨를 붙이고 앉았다. 대불전 앞마당에 미리 깔아둔 간이 의자까지도 만원사례이다.

체구는 자그마하신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해국 스님의 법문이 우렁우렁 팔공산을 울렸다. 운집한 대중들 또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스님의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듣고 있다. 자꾸만 터져 나오는 박수에 급기야 스님께서서는 박수 치느라 아까운 시간 다 보낸다며, 박수 그만 치고 당신 말씀 잘 들으라고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하신다. 그런데 대중들이 또 박수로써 화답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현대 그것이 모두 빌려온 지식들이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질 않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과 내가 직접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간화선 조사들이 직접 걸어 올라오라고, 직접 체험하라고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닷물을 떠 볼거라고 조리를 바다에 담그면 조리는 바닷물로 흠뻑 젖습니다. 하지만 조리를 들어 올리면 바닷물은 그대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바닷물이 들어온 건가요? 나간 건가요? 바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바닷물이 영혼이라면 조리는

이 몸통이입니다.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본질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발심이란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오늘 했던 발심, 내일 또 하는 것입니다. 인삼은 6년 만에 캐지만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합니다. 수행도 듣는 즉시, 마음 나는 즉시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발심으로 모두 간화선 수행자 되어서 번뇌망상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 필경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즉문 :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설 : 처음에는 정중일어를 하십시오. 여기서 진일보하면 동중일어를 하게 되고 마침내는 몽중일어를 이루게 됩니다. 깨어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내가 깨어 있는 시간 중 단 5분만이라도 깨어있겠다는 원을 세우십시오. 다음 날은 10분, 그 다음 날은 15분으로 점점 시간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하루 5분만 깨어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네째날 : 10월 18일(화, 음9.18)

법 사 : 함주 월복 대선사

오늘은 눈에 확 띄 정도로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였다. 법의에 고통색 깃을 단 학인스님은 물론이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서릿발 같은 기운이 철철 흐르는 스님들이 계속해서 법당으로 들어가셨다. 그 모습이 어찌 장엄하던지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법문에 앞서 진제 종정 예하께서 봉암사 세계명

상마을 건립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쾌척하셨다는 소식이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모두가 큰 박수로 감사의 예를 드렸다.

대중법회에서 법상에 오르는 것이 10여 년만이라는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함주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수행정진에는 고행이 전제가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깨닫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그



렇게 해서는 수행이 안됩니다. 저 태산이 훤한 줄한 줄이 모이고 모여서 이뤄졌듯이 수행하는 과정도 혹여 하찮아 보이고,

쉬운 것으로 여겨져도 그것이 바르게 모이고, 쌓여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착한 행동을 합니다. 축생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살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도 부처님의 세상이 됩니다. 자타가 없는 가운데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고통 중의 중생을 보면 그것이 끝나이니 어찌 보살도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화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자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누기 욕을 하든, 시비를 걸든, 칭찬을 하든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화두를 어떻게 들라는 말보다 저는 이 말씀으로

화두를 삼으시라 권합니다.”

즉문 : 식곤증은 아닌 것 같은데,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것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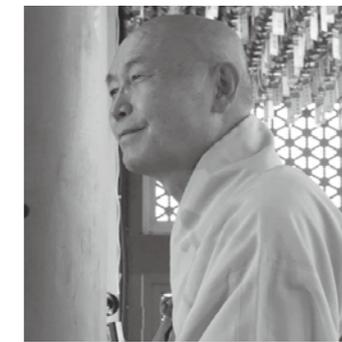
즉설 : 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냐요? 육신은 대도인 스님이라도 수행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탈이 납니다. 졸음이 온다면 우선 적게 드십시오. 그리고 졸음 따위에 끄달리는 자신에 대해 큰 분심을 일으키십시오. 나한테 무한하게 있는 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육신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천덕꾸러기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대발심하면 졸음 따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 : 10월 19일(수, 음9.19)

법 사 : 금산 지환 대선사

동화사 일주문을 지나 대불전으로 가자면 유독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한다. 108계단을 꼬박 올라야 하는 길도 있고, 경사도가 좀 있기는 하나 평지길인가 싶지만 이내 계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니면 멀리 돌고 돌아 무려 33m의 장대한 통일약사 대불을 친견하고 대불전으로 향해야 한다.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의 법문이 있는



간화선대법회 넷째 날은 계단 난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어른부터 등가방 짊어지고 염불하며 대불전으로 향하는 젊

은이 등등 불자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죽비를 들어 보이며) 볼 때 볼 뿐이고, (죽비

를 한 번 친 후) 들을 때 들을 뿐이면 됩니다. 마치 거울이 시키면 흠뻑어리라고 싫어하고, 빛나는 금덩어리라고 더 좋아함 없이 그냥 비춰주듯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 작용이 진무심(眞無心), 진공심(眞空心)으로 이뤄지면 해탈열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선 공부는 먼저 발심(發心)을 해야 합니다. 본래 부처인 내가 왜 현실에서는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뼈저리게 자각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심을 크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게으름이 생기지 않도록 더없이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위산 선사께서 3생 동안 물러남 없이 참선 수행을 하겠노라 맹세하면 반드시 부처 자리를 얻을거라 하심도 같은 말입니다.”

“萬里無雲 萬里天(만리무운 만리천)
구름이 흩어지니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無限清風 盡大地(무한청풍 진대지)
한없이 맑고 시원한 바람이 온 대지에 가득하더라.”

즉문 : 참선을 하다보면 신통을 얻을 수 있는데 선사들이 신통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설 : 신통은 악마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 반야입니다.

여섯째 날 : 10월 20일(목, 음9.20)

법 사 : 두암 현기 대선사

시간은 늘 그랬듯이 어김없이 흘러갔다. 결코 녀



물가물하기만 하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여 년 간 수행정진만 하신 두암 현기 대선사의 법문이 예정되어 있는 오늘도 대불전 안팎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을 말하는 사람은 법을 듣는 사람에게 즉(卽)해 있습니다. 즉한다는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 법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은 법을 전하고, 법을 듣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이니 법을 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니 설법이라 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 말소리, 사랑분별을 떠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불보살과 선지식이 법을 듣는 사람 속이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귀로 쭉쭉 불법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헤아리지 마십시오.”

“불법이란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달마스님의 종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생각이 떨어지니까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심이고, 불법입니다. 생각이 끊어진 곳, 그곳이 깨달은 자리입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밥맛이 어떤지, 물이 찬지 뜨거

녁하지 않은 시간 안에 행사 준비를 하느라 너나없이 동분서주했던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된 한 폭의 그림과 마주하고 선 듯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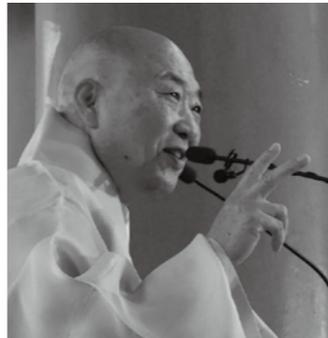
운 지는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미 성취되어 있었음을 바로 아시고 여러분 모두 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즉문 :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이 무슨 뜻인지요?

즉설 : 목적에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유정물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념(精念)을 여의면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집니다. 그저 이름이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한 생각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회향일 : 10월 21일(금, 음9.21)

법 사 : 학산 대



시작을 했으니 끝도 보아야 한다. 7일간의 간화선대법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한 대중도 있고 마음과 달리 이런저런 사정으로 겨우 오늘 하루 자리를 함께 한 이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과 달리 사홍서원을 마치고 다시 제 갈 길로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맑아 보인다. 가을 하늘처럼 한껏 높아져 있는 듯도 하고 끝을 알 수 없게 한껏 넓어져 있는 듯도 하다. "간화선이란 한 마디로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돌로 보고, 돌을 금덩어리로 잘 못보는 중생의 견해를 금을 금으로, 돌은 돌로 바로 보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간화선은 닦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중생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나를 바로 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부처, 조사, 중도 다 소용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 화두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화두에는 아무 것도 붙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 간화선 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나를 알게 되면 가정과 사회가 절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데에 간화선의 요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서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간화선은 한 마디로 일구를 함축해서 중생들의 잘 못된 견해를 깨주어 본분소식을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문 :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즉설 :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데서 큰 행복이 옵니다.

즉문 : 부처님께 매일 마지를 올리면 부처님은 어떻게 드십니까?

즉설 : (밥 먹는 시늉을 해 보이시며) 이렇게 잡습니다.

7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감사한 소식이 또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 기금으로 안국선원 선원장이신 수불스님이 3억을 회사 하셨는가 하면 조대운, 연화문 보살 부부가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그리고 간화선대법회를 마무리하고 보니 법회 기간 중에만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210명이, 수좌복지 기금 마련에는 431명이 정기후원을 약속해 주었다. 일시 후원자는 부지기수. 그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귀한 후원금, 더없이 귀하게 사용토록 더욱 애쓸 것을 약속 드린다.

*법문 요약은 불교신문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법념 스님(경주 흥륜사 한주)

개떡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라는 말이 있다. 보잘 것 없고 허술하더라도 편히 쉴 수 있어서 일게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젠 각자가 자기 방을 차지하고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불멘소리를 하는 시대다.

몽골 학습탐사를 가서 유목민들의 이동식 집인 게르(Ger)를 체험하게 되었다. 예닐곱 명의 가족이 대여섯 평 남짓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부엌이자 응접실이며 거실의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 가재도구를 비롯해 모든 게 다 있어 그 안에서 다 해결한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느라 혈안이 되지는 않았는지, 일 년 이상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을 재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책장에는 꼭 읽어야 할 책만 꽂혀 있는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생각들이 연이어 스쳐갔다.

‘나물 먹고 물마시며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구나.’

『논어(論語)』술이(述而) 편에 나오는 말이다. 옛사람은 이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찾았다. 그러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큰 집, 넓은 방을 선호하게 되었다. 나 자신도 혼자 살

며 삼십여 평이나 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니 뭐지 몰라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닌가싶다.

자신만의 방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절에서 주지라는 소임을 맡게 되니 필요에 의해 헌집을 고쳐 주지실 채로 만들었다. 갑자기 집 한 채가 생겨 호사를 누리게 되니 처음엔 이래도 되는가라는 미안한 감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상에 올리는 꽃감대추마냥 ‘그저 그런 거러니’하며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주지를 그만두면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 나가서 살아볼 요량으로 스님들이 사는 아파트를 미리 알아보러 갔다. 원룸 형식의 열 평 짜리 방을 들여다보니 도저히 이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은사 스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나가서는 도저히 못살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서...”

뒷말을 흐렸더니 도량 뒤쪽에 창고처럼 쓰던 건물을 고쳐 쓰라는 허락을 내렸다. 주지를 내놓기 전에 집을 완성하라는 당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살겠다는 게 좋았던 모양이었다. 한 번 널찍하게 살다보니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 모른다고 좁은 데선 못 살 것 같아 좀 크게 자리를 잡았다. 고치는 현장을

보고 은사 스님이 한마디 했다.

“법념아, 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나이 들면 나중에 청소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그때는 좀 크면 어째서 싫어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다. 몇 년 지나니 어른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다. 일본유학 시절에는 다다미 널 장 반이 깔린 방도 좁다고 여기지 않았건만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새에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욕심이 앞서 삼십여 평을 넘어버렸다. 채울 줄만 알았지 비울 줄을 몰랐던 결과물이다.

어릴 적에는 피란시절이라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가 함께 살았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아버지가 겨우 집을 마련했다. 집은 생겼지만 나만의 방이라는 걸 절에 오기까지 가져보지 못했다.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사람이란 정말로 간사해서 그런 과거사를 옛일로 치부해버리고 현재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모양이다.

게르라는 한 칸의 공간만 있으면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건만...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방 안에 죽 늘어놓고 살았을까. 돌아가면 필요 없는 것들을 당장 치우고 간편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게으른 탓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은사 스님이 너무 크게 짓는다고 할 때 즐였더라면 좋았을 걸. 모두가 내 탓인데 누굴 원망하랴.

몽골의 게르는 가축들 먹이를 찾아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집이다.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치지 않는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안주하

는 공간이 되어야 하건만 언제부터인가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영국 민요 <즐거운 나의 집>에서도 ‘내 쉼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라고 노래 불렀거늘...

몽골 다녀와서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버릴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놀랄 정도였다. 왜 진즉 없애버릴 생각을 못했을까. 무엇을 위해 사느라고 방 안에 가둬놓고 전시장처럼 벌여놓고 지냈을까. 나 자신을 통째로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인 줄 알고 살아온 나날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다. 늦게나마 있어야 할 것과 없애야 할 것을 가리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버리고 나니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소유(無所有)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비움의 가르침은 예술에도 통용된다. 예전엔 동양에서만 비어있는 공간인 여백의 미를 중요시했으나 최근엔 서양에서도 건축이나 그림에 공간의 미학이 중요시된다. 이우환의 그림을 보라! 점 하나밖에 없지만 최고의 미술작품이라 하지 않는가. 집도 공간으로 형성된 곳이라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텔레비전 화면에서 가수 남진이 노래를 부른다. ‘반딧불 초가집도 임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이라고 온몸을 흔든다. 아닌 게 아니라 높은 빌딩도, 큰 저택도, 너른 평수의 아파트도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행가 가사지만 그 속에서 참다운 생활 철학을 배운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부자다’라는 평범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마음을 뚫어라, 「관심론」

여현 스님 / 동국대 강사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자유롭고 때로는 재미있다. 생각은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타국에서 활보하고 있다. 마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마음이 야속할 때도 있다. 아무리 생각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도가 넘치면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재미있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가 어떤 사물에 대해 그 본질보다 문화나 상황에 의해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사찰도 끼어 있다. 의도한 대로, 아니 전통이 배제한 현재 상황으로 인한 오해가 사실인양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찰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이다. 한 번도 중국을 가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찰이 하나있다. 바로 소림사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을 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았다고들 말한다. 특히 소림사를 무술로 접근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에도 소림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목격을 한다. 일반인들은 사찰의 스님들이 무술을 뛰어나게 잘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경이로워 한다. 때로는 스님들은 무술을 잘 할 것이라는 오해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림사에 산다고 하는 스님들을 보면 이런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님들의 입장에서 무술은 중요하지 않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 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

한다. 필요에 의한 무술이지 무술을 위한 사찰이 아니라는 말이다.

스님들이 중국 소림사를 찾는 이유는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스님 때문이다. 중국에 도착하자 마 시절인연이 이르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들 어간 사찰이 바로 소림사이다. 그래서 소림사 본 사찰이 아니라 달마 스님이 공부하신 곳을 참배하고 싶어 스님들은 소림사를 찾는다. 큰절을 빗겨나 초조암을 거쳐 올라가면 달마 스님이 9년간 면벽을 하셨다는 동굴이 나온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9년을 지내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작은 동굴이다.

이 작은 동굴처럼 처음에는 미약했던 선종이 시대를 지남에 따라 점점 대중에게 알려지고 중앙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중국 중앙에서 선종을 휘어잡았던 선사가 바로 대통 신수(606~706) 선사이다. 신수로 인해 주변 불교에 속해 있던 선종이 주류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였다. 신수는 동산법문이라고 불리는 홍인의 상수제자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 수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하나의 선문을 이끌었고, 성공적으로 중앙에 선을 확산시켰다. 측천무후가 신수의 명성을 듣고 장안 내도량으로 모셔 와 법요를 설하게 하였던 것이 그 증거이다.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의 지지를 받아 중앙에 진출하여 선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주요한 인물이다. 측천무후 뒤를 이어 중종, 예종도 신수를 국

바람이 분다

희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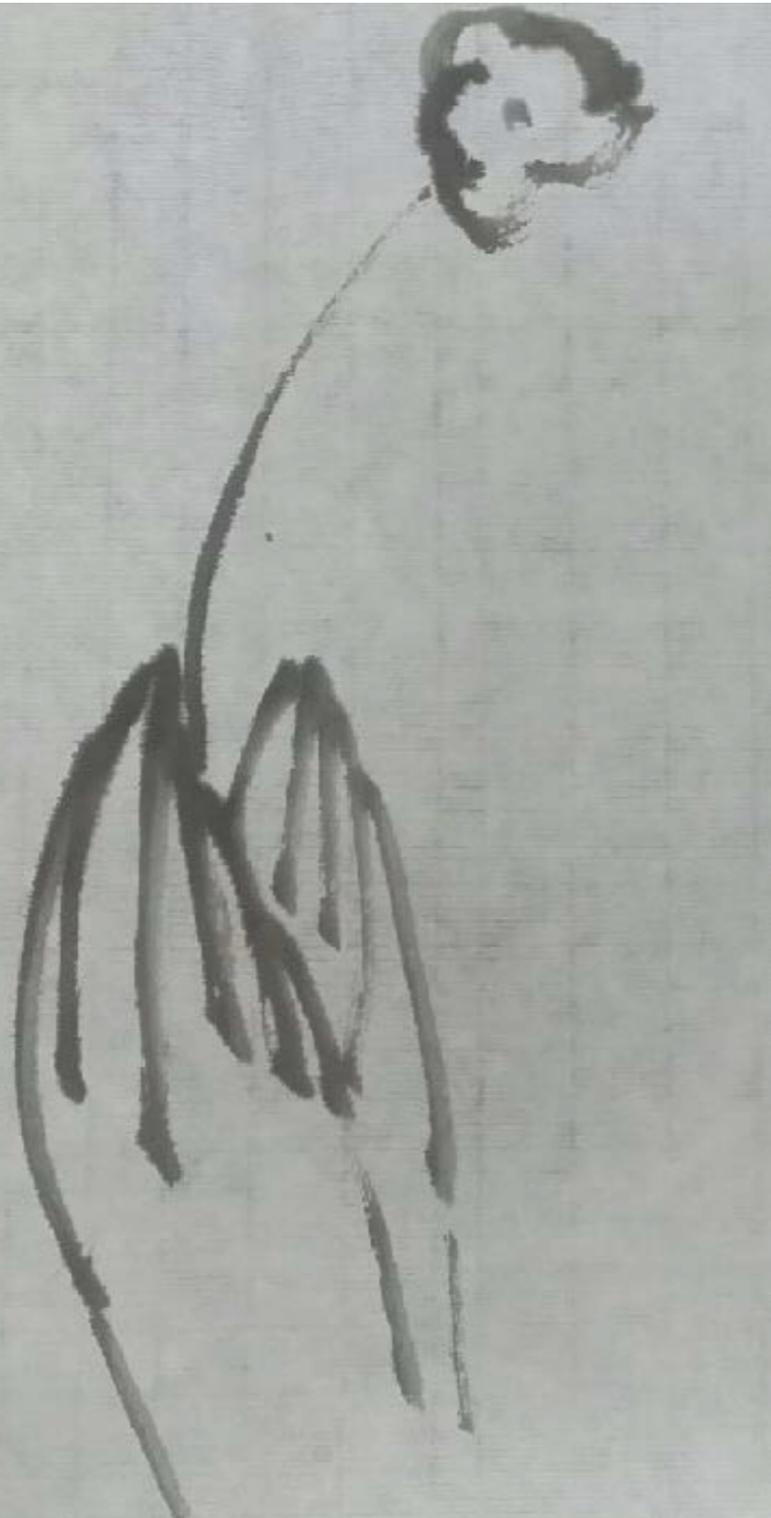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거친 바람...
살가운 바람...

그리고
고요한 바람.

오늘도
바람이 분다.

천천리... 囍



사의 예를 다하여 모셨다. 또 중서령(中書令) 장설(張設)은 제자의 예로써 선사를 받들었다. 이처럼 중앙인 낙양과 장안에서 왕성한 활약을 했던 선사였다. 비록 남종 혜능에게 선종의 주도권을 빼앗겨 법통이 단절되었지만,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입적한 지 거의 1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활동한 규봉 종밀(780~841)도 간과할 수 없는 큰 인물이었다. 비문 등을 살펴보면 북종 신수의 제자들이 규봉 종밀의 시기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북종 신수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신수에게 저서가 몇 편 있는데, 수행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책이 「관심론(觀心論)」이다. 「관심론」도 우두 범용의 「절관론」, 홍인의 「수심요론」처럼 문답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선종 문헌에서 보이는 자문자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상론(破相論)」이라 달리 불리는 「관심론」의 주제는 ‘관심(觀心)’이다. ‘마음(심, 心)’이 논제의 중심이며 관심행법이 없으면 해탈도 없다고 본다. 마음에는 ‘깨끗함과 더러움[염정(染淨)]’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서 관심이 시작한다. 본디부터 청정한 마음인 정심(淨心)과 무명(無明)에 덮여진 염심(染心)의 두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육바라밀을 통한 정심(淨心)으로의 회복을 주장한다. 이렇듯 「관심론」은 불도수행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수행 전반이 관심의 대상인 내면적인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특색이다. 신수의 다른 저술인 「대승무생방편문(大乘無生方便門)」은 경문을 해석하여 근본 뜻을 밝히는 것에 반해, 「관심론」은 일상적인 공덕에 관한 문제를 풀어 나아

간다. 단순히 공덕을 쌓아 불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인 마음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유심주의의 입장에 선 신수의 마음에 대해 수행법으로 친절히 다가간 것이다.

「관심론」은 짧은 글에 속하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편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러 문헌을 모아 편집하여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문촬요(禪門撮要)」가 바로 그런 책이다. 구한말 일제 불교에 대항하며 「선문촬요」를 편찬하고 보급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사가 경허 성우이다. 「선문촬요」는 중국과 한국 스님들의 법어를 하나로 엮어 구체적으로 참선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이다. 「관심론」은 「선문촬요」상권에 들어가 있다. 「선문촬요」가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있다. 그 중에 민족사에서 발행한 「선문촬요」와 근래에 출간한 통도사 취운선원의 「우리말 선문촬요집」이 우리를 관심법으로 친근히 이끌어 줄 것이다. 또 운주사에서 발행한 「선가어록」에 「관심론」이 수록되어 있어 원문과 비교하면서 보는 맛도 즐길 수 있다.

‘관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건국자 왕건과 함께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궁예이다. 후삼국 시기에 궁예가 나타나서 잠시나마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때 관심법이라고 하면서 불교를 사용해서 통치에 사용했던 예가 있다. 이 이야기가 드라마로 방영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생들이 관심법이라고 흥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처럼 어린아이들도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으로 익숙히 다가고자 한 것도 또한 신수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경과 보고

중효 박희승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1.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취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경 봉암사는 조계종의 유일한 종립 특별선원이고 신라 구산선문의 선풍이 지금까지도 성성하게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행도량입니다. 오직 참선 수행만 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 봉암사에서 한 철 정진해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수좌 스님들은 봉암사를 마음의 고향 같은 곳으로 여깁니다. 이 봉암사 앞 마을에 세계명상마을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지구촌 인류는 여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빈발하는 자연재해, 탐욕적인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 심화, 종교 갈등, 인종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남북 분단 상황의 지속 아래 핵개발과

전쟁 위기,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 이혼율 1~2위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류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혜와 믿음을 주어야 할 종교계 역시 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평생 선방에서

정진만하여 온 <전국선원수좌회>의 수좌스님들이 간화선으로 인류와 한국사회에 지혜와 용기를 전하고자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을 건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어떻게 봉암사 앞에 세우게 되었는가?

2005년 <전국선원수좌회> 고우, 적명, 무여, 혜국, 의정, 설우 스님 등 전국 주요 선원장스님들과 종단은 공동으로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이라는 지침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이어 선풍을 쇄신하고자 선원의 청구 통일 시행을 도모하여 2010년 「조계종 선원청구」를 편찬하였고, 선원 수좌의 문화복지를 위해 자주적으로 2012년 재단법인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 이사 의정스님)를 출범하고 2013년 조계사에서 제1회 간화선대법회와 선사화전을 대규모로 개최하여 크게 간화선풍을 진작하여 왔습니다.

21세기 들어 서양에 명상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 아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명상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많은 엘리트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나 구글, 페이스북 등 첨단 기업에서는 명상을 임직원들의 마음 관리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은 몇 년 전에 그룹 차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명상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명상붐에 조용하여 선원수좌스님들이 봉암사, 종단과 협의하여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한국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국내외 널리 전하여 지혜와 평화의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봉암사에서 수좌 적명 스님, 무여 스님, 혜국 스님, 함주 스님, 지환 스님, 의정 스님, 영진 스님, 철산 스님, 월암 스님 등 10여 명의 수좌계 원로 중진스님들이 회동하여 명상마을 추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5월초에 같이 중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찾아 뵙고 봉암사 명상마을 건립에 함께 힘을 모아 가기로 하였습니다.

3. 명상마을 누가 어떤 규모로 세울 것인가?

봉암사 명상마을은 <전국선원수좌회>와 봉암사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명으로 진제 중정예하와 송담 대종사, 고문으로 총무원장과 8대 총림 방장스님, 오현 스님, 그리고 공동대표로 적명 스님과 혜국 스님, 공동추진위원장에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스님, 현목 스님, 그리고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이하 많은 제방 선원 어른스님, 선원장스님들이 추진위원, 집행위원으로 모셔져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봉암사 명상마을의 부지 제공은 봉암사가, 예산과 건립 운영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 이사 의정 스님)가 맡기로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고유환 시장)와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가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총무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암사와 선원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정각회장 주호영의원, 윤상현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역할 해 주어 1단계 사업으로 국고 약 30억을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건축 부지와 진입 도로 토지 매입 및 도시계획상 지구 단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마을 전체 건축 부지는 봉암사 입구 경비실 앞 개울 건너 마을 뒤쪽에 약 2만5천 평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사유지 약 4천 평 정도를 추가 매입하고 또 8미터 진입도로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국고 보조 이외에 자부담 20억과 토지 매입비는 온전히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 매입과 건축 규제 해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 2017년 봄에 건축 허가에 들어가 기공식은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 진행하여 다음 해인 2018년 가을에는 1단계 50억 규모 공사가 완공되어 개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사업에는 약 100~150명이 동시 숙박하며 명상할 수 있는 규모이며, 2단계 사업은 2019~2021년 약 150억 예산으로 15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명상마을 규모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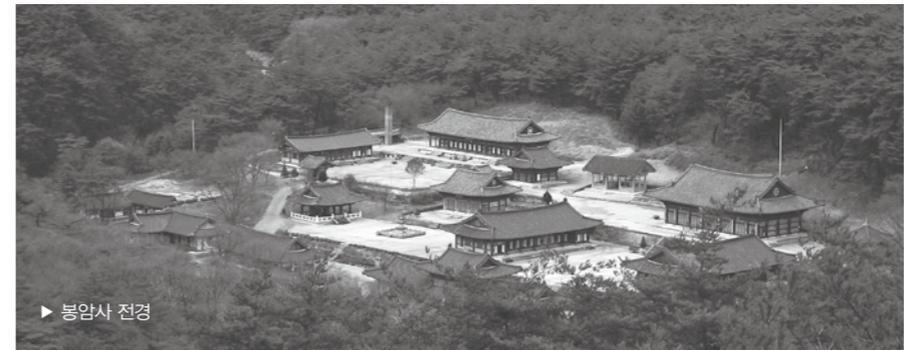
4.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추진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건립 운영 준비에 들어가 금년 초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 주요 명상

센터를 답사하고 운영 실태도 파악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제 선건축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한 차례 자체 세미나도 열어 어떻게 건립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도 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종단 포교원과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공동으로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명상마을 프로그램으로는 - 일반시민을 위한 참선 입문 및 심화 코스, - 외국인을 위한 참선 수련코스, - 가족·청소년 명상코스, - 무문관 코스, - 간화선 및 명상 지도자 코스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작불사는 봉암사와 수좌스님들이 추진하여 재정 기반이 미약합니다. 이에 전국의 뜻있는 불자, 선객들의 십시일반 보시가 매우 소중하며, 이 환희로운 불사의 초석이 될 것이오니 선한 후원 인연을 발원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앞으로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활동과 명상마을의 각종 소식도 전해드리며 완공시 시설과 프로그램 참여에 할인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이 뜻 깊은 봉암사 명상마을 불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발원합니다. ☺



▶ 봉암사 전경

렵의 수도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변경관과 이어져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한 건축적 해법은 영선암을 자연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자연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선승들이 가졌던 지견이었음을 승효상씨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래전 그가 감동을 받았던 비슬산 유가사 올라가는 길의 천연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훼손된 것에 대한 실망은 단순히 그것 자체에 대한 실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실망인지 뒤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다.

끝으로 화면 가득 들어오는 라마교 신자들의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갈구를 보면서 참석한 많은 이들이 생각한 선과 선 건축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 라마교 신자들의 오체투지

미국의 프렛 인스티튜트 건축학과 토마스 한라한(Thomas Hanrahan) 교수는 '사치나 기교를 배제하는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설계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빛이라는 요소를 선 건축의 주요한 설계언어라고 생각하는 건축가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토마스 한라한 교수는 한국의 선 건축을 선가(禪家) 공동체, 선 건축과 자연채광, 선 건축의 사용자재,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선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연 속에 형성된 공

동체, 명상, 배움과 학습, 손님맞이, 다양성과 세계화로 다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선가 공동체가 이미 한국의 선불교에서 연습된 환경이



▲ 라 트르네 수도원의 회랑

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연습된 환경이 곧 선 건축의 기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년 전 설계한 미국의 윈다르마 센터에서도 선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 한라한교수는 선불교라는 것이 특별한 공동체이고 이것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듯 했다.

이와 더불어 명상, 배움과 학습 그리고 손님맞이는 한국의 선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으니 이것이 선 건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양성을 가져야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화두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회의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선불교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작금에 미국에 세워진 한국의 사찰들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까닭에 세계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한라한 교수가 말한 선 건축과 자연채광은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이 건축적으로 어떻

게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빛과 어둠의 문제는 이미 한국의 불교건축에서 고민하였던 숙제였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사찰 그리고 서양의 수도원 설계에서 이미 중요한 설계언어가 되었던 터이다. 한라한교수는 빛의 성질을 위에서 들어오는 빛, 뒤에서 들어오는 빛, 부드러운 빛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보다 깊이있는 관찰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선 건축의 사용자재에서는 목재에 대한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기와에 대한 매력 등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러한 자재들은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온돌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온돌이라는 것 역시 열이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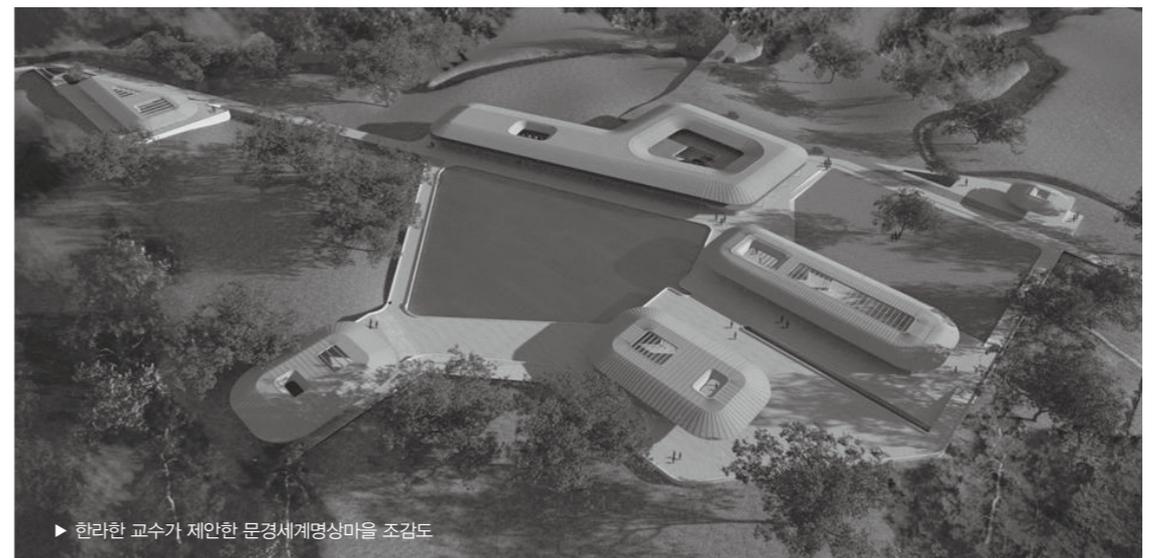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라한교수가 가지고 있는 선 건축의 언어는 자연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선 건

축의 표정은 자연 드러내기로 해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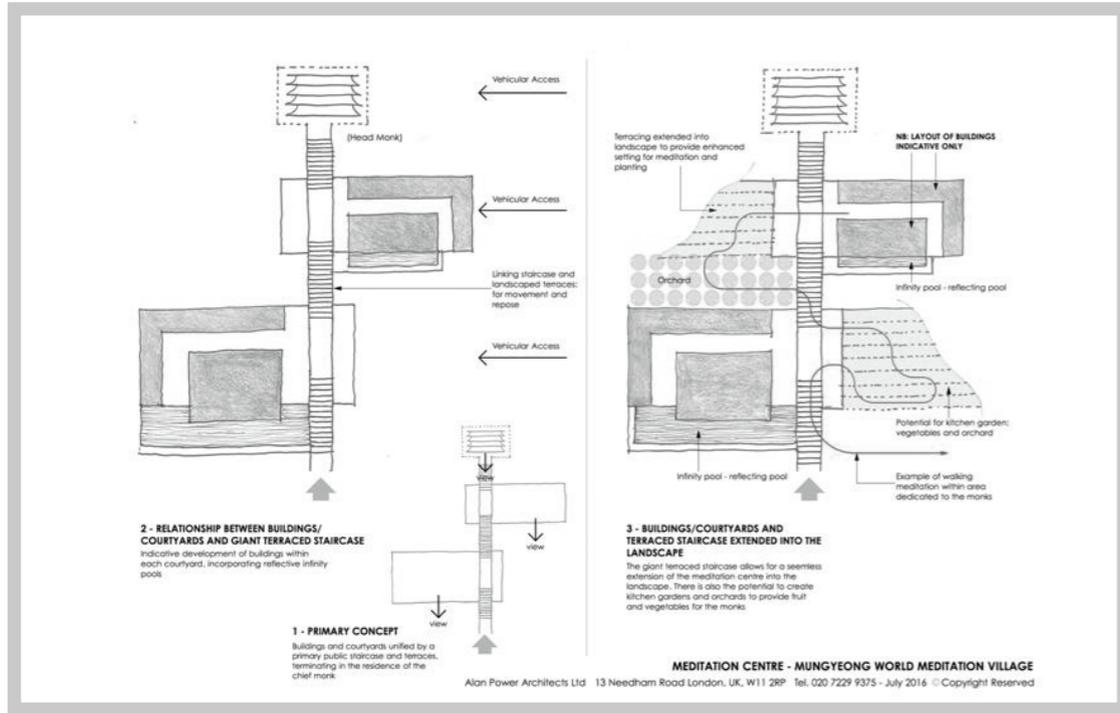
영국의 알란 파워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인 알란 파워(Alan Power) 소장은 선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선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선이란 무엇인가? 그는 한국의 선을 자연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선은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이 곧 선을 이해하는 매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연을 물과 빛으로 설명하였다. 물의 속성과 빛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선 건축을 위한 설계언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선 건축 이론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알란 파워 소장은 이러한 선 건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의 설계개념을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설계개념은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연이 가진 속성과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빛의 이용 그리고 물의 이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



▶ 한라한 교수가 제안한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



▲ 알란 파워소장이 생각하는 선 건축의 개념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스즈키 토모히로 연구원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선종사원에서의 좌선공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스즈키 연구원은 가마쿠라시대에 일본으로 선종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불교사찰이 선종의 생활규범인 선원청규에 따른 공간구성과 공간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선 건축이 활발하게 건축되기 시작하였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송제산도(大宋諸山圖)' 등을 통해 중국의 선찰에 대한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에 조성된 겐초지(建長寺), 도후쿠지(東福寺), 카이간지(檜巖寺), 만부쿠지(万福寺), 에이헤이지(永平寺) 등의 선찰들을 비교 분석하여 선 건축의 표정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

다. 스즈키 연구원의 발표는 일본의 초기 선찰의 공간구성과 건축의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국의 선 건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그리고 선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전달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도후쿠지 선당



▶ 은해사 거조암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김개천교수는 '선의 건축과 현대적 창조'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김교수의 발표는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선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불화를 비롯해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 단원 김홍도의 민화는 물론 해인사 들어가는 길, 통도사 금강계단, 선암사의 승당, 은해사 거조암, 부석사 안양루 등을 자료로 하여 선 건축의 언어와 표정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발표 말미에 "만약 건축이 대상과 그에 의해 사유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가장 순정하고 심후한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피안만이 아닌 하화(下化)의 모습까지 띤 선일 것이다. 무용의 잉여상태를 가지지 않고 여분의 장식이나 절제조차 없이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직면하여 심연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건축으로 평범한 것 같으나, 피안의 모습도 함께 가지면서 시각적 대상에서 떨어진 건축으로 고유한 존재성은 사라지고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禪)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의 생각을 정리하

여 말했다.

고쿠지칸 대학의 미나미 교수는 '정신과 마주 보기 위한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신과 조용하게 대면하기 위한 건축은, 장소를 떠나,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시설의 하나로 생각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겨져 오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의지하는 곳으로,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신전과 교회, 절과 신사, 모스크 등은 그러한 가장 으뜸적인 사례이고, 넓게 생각해보면 장례식을 위한 건축, 다실 등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신과 대면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사원건축인 효고현의 정토사 정토당, 대덕사 고봉암과 다실인 교토의 묘희암 대암 등과 이슬람의 모스크와 유럽의 수도원 등을 포함하여, 오래전부터의 대표적인, '기도, 명상, 대면의 건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분석의 결과로 서양적 공간은 수직적, 폐쇄적, 구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유리된 자율적 공간으로 이해된다고 하였고, 이에 반해 일본의 공간은 수평적, 개방적, 원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원과의 관계를 중시한 연속적 공간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근대 및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명상을 위한 공간'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후의 미래에 대하여, 세계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명상을 위한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많은 반응을 얻어냈다.☺



● 제2회 간화선대법회 원만 회향
10월 15~21일, 동화사 대불전

제2회 간화선대법회가 지난 10월 15일~21일까지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대불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2013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법회에는 진제 종정 예하를 비롯해 축서사 문수선원장 금곡 무여 대선사, 석종사 금봉선원장 금아 해국 대선사,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함주 월복 대선사,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금산 지한 대선사, 지리산 상무주암 두암 현기 대선사,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선사가 7일간 매일,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는 주제로 사자후를 설하셨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등 무려 1만8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 간화선 수행에 대한 대중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7분 선사들은 한결같이 간곡한 어조로 간화선이란 대발심해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 정진 하는 것이라며, 바로 보고 바로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수승한 간화선 수행으로 모두 불도를 이루길 축원해주셨습니다.

또 법문 후에는 동참 대중의 온갖 궁금증들을 그 자리에서 여쭙고 바로 답을 듣는 즉문즉설 시간을 마련,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7분 선사 스님들의 법문과 즉문즉설 내용은 바로 오디오CD로 제작, 법문 다음날 대중들에게 판매 및 정기후원 신청자들에게 선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제2회 간화선대법회에서는 수좌 스님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수좌복지 기금 및 간화선 대중화,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기금 후원을 모연, 봉암사 사업 210건, 수좌복지기금 후원 431건 등 총 641건의 정기 후원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 (주)현원개발, (재)대한불교진흥원
간화선대법회 행사 후원금 전해와

제2회 간화선대법회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드러냄 없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많은 선연들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불자 기업인 (주)현원개발에서 1천만원을,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3백만원의 행사 후원금을 선뜻 전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기에 널리 알려드리며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진제 종정예하 1천만 원, 수불스님 3억 등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 기금 후원

제2회 간화선대법회를 계기로 본 법인에서는 간화선의 대중화,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취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부대중이 한 뜻으로 함께 주실 것을 발원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가 봅니다.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7일간 간화선대법회가 열리는 동안 진제 종정 예하가 1천만 원을 쾌척하신데 이어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무려 3억 원을 그리고 조대운, 연화문보살 부부가 2천만원, 권필수 불자가 1천만원의 큰 후원금을 회사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회 동참했던 많은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땅 한 평, 10평, 서까래, 기둥이 세워지길 발원한 다며 일시 또는 정기 후원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연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6년 하안거 중 의료비 지원현황
38건 4,688만여 원 지원

유별나게 덥고 길었던 올해 여름, 전국 선원의 스님들도 오후 대중방 정진을 쉬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님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2016년 동안거가 결제 바로 전날까지를 하안거 의료비

지원일로 잡고 있어 최종 지원현황에 근접한 내역임을 우선 밝힙니다.

10월 27일 현재 올 하안거 중 의료비를 지원 받은 수좌 스님은 모두 38분에 이르고 지원 총액은 46,889,650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곧 동안거가 결제됩니다. 동안 거에는 눈길에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청정수행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 국제 선건축 세미나, 지난 9월 10일 개최
스님, 건축 전문가 등 130여 명 참석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선(禪)적 이미지에 걸맞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해온 "선(禪)건축의 표정과 언어, 국제선건축 세미나"가 지난 9월 10일 개최되었습니다.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1시부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예정했던 오후 7시를 훌쩍 넘겨 8시 가까이 되어 마무리를 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제에서 미국 뉴욕 프랫대학 토마스 한라한 교수는 건축을 통한 선종 공동체 구현, 자연채광, 명상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자재 선정,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 건축가 알란 파워 소장은 "한국의 선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물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공간을 찾아야 한다"면서 인위성을 배제한 건축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불교 사상에 기반한 건축을 해오고 있는 김개천 교수는 "선의 건축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선을 설하고, 우주를 빛내야 하는 것"이라고 선 건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불교계의 선건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며 장장 7시간의 마라톤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

표 내용들은 향후 조성될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30명 동참, 3회 간화선 단기간회 회향

제3회 간화선 단기간회가 지난 8월 28일, 3박 4일의 일정을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송담 큰스님께서 양평 단월면 너른 부지를 기증해주신 덕분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설 시민선방으로 본 법인이 운영 하고 있는 '수리선원'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단기간회에는 모두 30명의 간화선 수행불자가 동참, 시종 뜨거운 열기로 정진하였습니다.

올해 단기간회에서는 종전과 달리 '선재동자'라 이름 붙은 새 프로그램을 운영, 동참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선재동자'는 법사 스님들과 동참자가 팀별로 연속해서 만남을 갖고 질의응답으로 수행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해 처음 실시했던 어른스님들과의 일대일 독대를 통한 화두 점검까지 이어져 동참자들에게는 그 간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수행 중의 궁금증, 문제점에 대한 바른 답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간화선 수행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단기간회에는 선감 강설 스님, 입승 원유 스님 그리고 정과 스님과 인선 스님이 지도법사로 수고해 주셨으며 어른 스님과의 독대에는 대표이사 의정 스님과 이사 정찬 스님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勸君須立丈夫志 此生了報大師恩
如今正法將欲墜 早續明燈度迷津
踏碎天下群邪網 切須要見明眼人

그대에게 권하노니 반드시 장부의 뜻을 세워
이번 생에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오늘날 정법이 추락하려 하니
속히 밝은 등불을 물려받아 미혹의 언덕을 건너가라.
천하의 삿된 그물들을 모두 밟아 부수고
간절히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 『太古語錄』 「示可禪人」